담양 역사·문화가 살아난다

담양역사박물관 건립 본격화
군, 국립광주박물관과 업무 협약
2024년 개관 목표 사업 추진

담양군과 국립광주박물관은 최근 '담양역사박물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른쪽은 담양역사박물관 조감도.. 〈담양군 제공〉

담양군은 국립광주박물관과 담양역사박물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형식 군수와 이수미 국립광주박물관장이 참석해 담양역사박물관의 개관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담양군 출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역사박물관 건립 운영에 관한 사항, 담양의 역사와 문화를 일반에 널리 알리는 다양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현재 담양역사박물관은 박물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 군수는 "국립광주박물관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방식이나 다채로운 전시 및 프로그램, 역사와 문화를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공유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지역의 역사 문화 가치를 높일 선도주자로서 국립광주박물관이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과 국립광주박물관은 지난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한 '남도문화전 VI 潭陽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기자 노트

언론 길들이기

김 용 기
중부 취재본부장

장흥지역 사회가 군수의 언행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최근 소셜미디어(페이스북, 밴드)로 군정 치적을 알리다 공직선거법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정 군수는 올해 1월부터 페이스북에 군정 홍보 글을 올리고 산하 공무원들로 하여금 "좋아요, 공유하기, 댓글달기"를 유도하다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페이스북 홍보전략을 중단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업무는 뒷전이고 단체장 SNS 확인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푸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충성 경쟁은 낯 뜨거울 정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군수가 공무원사회 줄세우기와 충성도 경쟁을 시킨다며 뒷말이 무성하다.

정 군수의 공직사회 충성 시험대는 지난해 6월 군청 간부들 단체 카톡방을 통해 심야 술판을 벌이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벌어진 언론보도 분석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 군수는 이 자리에서 "밝은기사를 내는 언론사는 지원하고 그러지 못한 언론사는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민선 단체장의 이런 언행은 과거 5공 군사문화 시절에나 있을 법해 민주화 언론환경에 역행하는 태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비판이나 지적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홍보(광고비) 지원을 하지 말라는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알권리를 전달하는 언론을 군민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앞세워 탄압하려는 의도로 볼수 밖에 없다.

장흥군의 연간 홍보 예산은 지난해 9억3000만원, 올해는 9억8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보 예산을 말 잘듣는 언론사에게만 쌈지돈 나눠주듯 집행하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의 위험한 발상이 아닐수 없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장흥군 홍보대응 전략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정 군수는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새조개 채취 민원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사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이런 이유 등으로 최근 본인에 대한 여러 의혹의 기사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심기가 불편한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단체장들이 홍보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지만 비판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없다면 성공적인 군정 수행은 모래성 쌓기에 불과할 것이다.

/kykim@kwangju.co.kr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서 사세요

강진군 6월 준공…65세 이상·40세 미만 20세대

강진에 농촌형 공공임대 주택이 오는 6월 준공된다. 〈조감도〉

8일 강진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이 공공임대 주택 조성 사업은 국비 16억원을 포함해 총 23억원이 투입된다.

농촌지역 고령화·공동화·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공간 및 복지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강진읍 교촌리 일원 4707㎡ 부지에 15평형 2세대, 12평형 18세대 등 총 20세대를 조성한다.

입주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40세 미만 청년 귀농인 등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농촌형 공공임대 주택 외에도 신규 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귀농귀촌 수요 증가에 따른 주거공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가족 힐링 텃밭' 가꾸세요

화순군, 19일까지 선착순 접수…5평 3만원

화순군은 도시민에게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19일까지 '힐링 가족 텃밭' 신청을 받는다.

화순군은 화순읍 교리 247번지 1898㎡(575평)부지에 힐링가족텃밭을 조성해 1구좌 당 16.5㎡(5평, 공공시설 포함) 규모로 3월1일까지 임대료 3만원 씩 총 72구좌를 분양할 계획이다.

신청은 화순군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화순군농업기술센터에 하면 된다.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참여 대상자들 상대로 텃밭 유의 사항과 사전교육을 진행한다. '텃밭 가꾸기' 책자를 제작·배부해 텃밭 작물을 스스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작은 텃밭을 일구며 코로나19 속 답답한 생활을 벗어나 잠시나마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코로나 설 따뜻하게" 나주 금라회, 쌀 160포 기탁

나주지역 주요 기관·단체장 모임인 '금라회'는 지난 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10㎏들이 160포를 기탁했다. 〈사진〉

금라회 총무인 박내춘 농협 나주시지부장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고향 방문이 어려워진 만큼 외로이 명절을 보낼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약 500만원 상당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생활취약계층 8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청와대(5년)·강원랜드(3년) 납품점

다향굴비

대 표 곽희순·이용철

우리 업체는 100% 국내산 참조기만 엄선하여 최상의 품질과 신용을 바탕으로 하며, 국내산 천일염(5년 이상)으로 염장하여 항상 고객님을 위해 더욱 맛 좋은 굴비를 만들겠습니다.

문 의 ☎ 061-356-6798
☎ 010-5356-4990

마음의 거리 좁히는 Best

코로나 극복하는 명절!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주문하러가기

굴비 (가정용)

70,000~130,000원

굴비 (선물용)

100,000원부터~

보리굴비

80,000~100,000원